

한국인 입양아, 신네 순 퇴에스
 노르웨이에서 브라게 문학상 수상
**“ 획일화되고 규칙화된
 세상에 도전하고 싶어요 ”**

지선(池善)이라는 한국이름을 가진 신네 순 퇴에스(Synne Sun Løes, 32세). 그녀가 다시 돌아왔다. 5년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면, 이번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다. 그녀는 장편소설 《아침으로 꽃다발 먹기》로 2002년도에 노르웨이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브라게 문학상을 수상했다. 한국에 있는 여동생의 도움으로 한국어판이 출간됐고, 이를 기념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남편과 함께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렀다. 노르웨이대사관저에서 12월 18일 한국어판 출간기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해줬다.

그녀는 자신만의 언어로 세계를 창조하는 데 큰 매력을 느꼈단다. 그래서일까. 《아침으로 꽃다발 먹기》라는 소설제목부터가 심상치 않게 다가온다. 작가로서 문학에 대한 의미는 “언어를 통해서 자신을 의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그녀가 추구하는 작품세계는 소설 속에서, 책제목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꽃을 먹는’ 행위는 획일화되고 규칙화된 세상에 도전하려는 함의가 담겨있다. 4년 동안 정신병동 간호사로 일한 경험을 거름으로 삼아 쓴 《아침으로 꽃다발 먹기》는 조울증에 걸린 ‘미야’라는 17세 소녀가 가을을 지나 겨울과 봄을 맞이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되찾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십대 소녀의 혼란스러운 감성과 불안감을 의식의 흐름에 따라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문체가 매우 짧고 자유분방하다. 그녀는 “작가욕심은 모든 독자를 대상으로 삼고 싶지만,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썼다”면서, “노르웨이에서도 청소년 독자들에게 많은 편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퇴에스 씨는 태어난 지 7개월째 쌍둥이 오빠와 함께 노르웨이로 입양됐다. 한국과 관련된 뉴스를 보거나 거리에서 한국 사람을 보면 저절로 눈길이 가지만 노르웨이인으로 삼십이년을 훌쩍 보낸 세월은 한국이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아마도 그녀를 다름의 개념에서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들 때문일까.

그녀는 현재 정신병동에서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정상이 아닌 사람, 소위 광인(狂人)의 정신세계에 유난히 천착한다. 작가의 시선은 그들의 세계와 인간관, 그들이 표현하는 언어를 응시한다.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이등분 논리에서 벗어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내재돼 있는 광기를 작품의 소재로 삼을 것이라 한다. **◆◆**

취재 정윤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